

■ 2017년도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사업 심의 총평

[심의경과개요]

- 일시 : 2017. 01. 17.(화) 09:30~18:00
 - 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다목적실(3층)
 - 심의위원(가나다순)
 - 시각예술분야 : 김종근, 김영호, 박계리, 이임수
 - 공연예술분야 : (연극분야) 노이정, 윤우영 (무용분야) 조은숙, 최해리
(음악분야) 주재근, 최원선 (전통예술분야) 김민경, 김세종, 전지영
 - 예술일반분야 : 박만진, 박지환, 안영노
- ※ 분야 및 세부 장르별 심의가 불가피한 사업의 특성에 따라 심의 총평을 심의위원 전원이 작성

[총괄]

2017년도 문화예술기관단체 연수단원지원사업의 심의는 신청단체 총 289개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여러 장르에 대해 지원하여야 하는 사업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서로 다른 장르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을 일괄적으로 평가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분야 및 장르별 연수단원 배정 기준 및 그에 따른 배정 가안을 먼저 검토하였고 그에 따라, 배정인원 수를 충족하는 단체수를 선발하였다.

연수단원지원사업은 두 가지 목표 및 기대효과를 가진 사업이다. 첫째, 문화예술 전공자 즉, 사회 초년의 예술 인력에 대한 일자리 및 역량향상 기회 제공의 측면이 있다. 둘째, 연수단원을 지원받는 문화예술단체에게는 단체의 인적 역량이 보장되는 효과가 있다. 심의위원들은 심의를 진행하면서 위의 두 가지 기대효과 중에서 단체에 대한 인적자원 지원 보다는 연수단원 본인의 일자리 및 역량향상에 보다 높은 중요성을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단체의 성격, 예술적 성과와 활동 계획도 중요하지만, 연수단원의 역량향상 지원 의지와 활동조건, 연수단원의 활동을 지원할수 있고 역량향상을 실질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단체의 역량과 조건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방향성 안에서 예술단체의 활동실적 및 계획의 충실성(60%), 단체의 구조 및 인적역량과 인적요소에 대한 투자정도(40%)를 2대 평가요소로 삼아 마련한 심의지표체계를 점검하여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심의를 진행하였다.

연수단원지원사업은 장르 간 균형 외에도 연수단원을 배치할 민간단체와 국공립단체의 배정인원 균형을 고려하였으며 전년에 연수단원이 배치되었던 단체와 신규

신청 단체를 함께 심의해야 하므로, 전년 지원실적이 있는 단체는 연수단원 지원 및 운영 실적을 우선 고려하고, 신규단체의 경우 단체의 역량이나 활동실적 외에도 연수단원의 운영계획, 즉 연수단원을 활동과 역량향상을 지원할 의지나 조건들을 파악하는데 많은 노력을 할애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위와 같은 여러 고려사항을 토대로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장르 간 균형, 민간과 국공립단체의 적절한 인원 배정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한다. 아울러 심의위원회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더욱 홍보하여 더 적극적으로 역량 육성을 지원할 단체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단체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연수단원의 육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분명하게 자리잡도록 예술위원회가 단체 관계자에 대한 홍보와 워크숍, 그리고 각 연수단원들도 본인을 지원하는 사업의 취지를 분명히 인지하도록 교육이나 네트워크 행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향후 사업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편, 각 분야 및 장르별 심의총평을 부기한다.

심의위원 일동

[시각예술분야]

- 기본적으로 전시 기획 역량이나 능력이 있는가와 운영실태, 성과, 현재 인턴을 지원받아서 향후 미술 전문 인력으로 키워 나갈 수 있는가? 그리고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를 우선적으로 심의. 그것에 기준 삼아 평점을 부여 함. 특히 문예기금이니 만큼 공공성과 육성효과에 주목함.
- 시각예술분야의 심의 기준인 지원단체의 활동실적 및 사업 계획의 적합성을 중심으로 평가함.
- 신청단체가 제출한 심의자료에 의거해 최근 2년간 활동실적 및 사업계획을 평가 함.
- 문화예술 특히 시각분야 전공 졸업자들이 연수 지원을 통해 향후 진로에 필요한 현장 실무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도록 지원 단체의 기획능력과 활동 능력을 중점 심의하였으며, 연수 지원자의 사회진출 기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청년 실업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인지 판단하였음
- 기관, 단체의 자체적인 기획력과 수행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드러나거나 실행 가능성이 높은 창의적인 시도들을 계획하고 있는 기관을 중점적으로 지원코자 함. 특히 기관, 단체의 방향성과 행사의 의도가 일관되고 뚜렷할수록 높이 평가함. 또한 지원 연수인력이 참여하여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기획, 실행하고 있는지도 고려함.

[연극분야]

- 기존 사업평가 및 2017년 사업계획, 인건비 지출과 투명성, 고용전환 실적 등을 중점 평가
- 전반적으로 우량단체들의 지원지원이 부족
- 신청 단체의 기존 활동의 공공성 등 사회적 의미, 활동 범위(활동성)를 중점적으로 살폈고, 연수단원의 고용전환성과, 기존고용인원의 4대 보험 적용 여부도 심의에 반영.
- 신생 단체 중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에 대해 초기 자생력 제고 차원에서 약간의 가산점을 부여.
- 정성평가 외, 계량적 평가에서 인건비 부담 비중, 4대 보험 가입자 비중, 상시근로 증가율, 연수단원 채용실적 등이 반영되는데 “인건비 부담 비중”의 경우 국, 공립 단체 외에 일반적으로 상업극 단체들의 점수가 높은 경향이 있다. “상시 근로 증가율”을 반영함으로 인해 현재의 대학로 공연예술계의 위기 속에서 특히 ‘예술적 공연’ 유관 단체(극단, 기획사 등)가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이들 단체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상이 발생한다. 올해 심의의 경우, 계량적 평가는 0 ~100점 범위로 점수가 반영되고 정성평가는 60 ~ 100점 범위로 점수가 반영됨으로 인해, 이런 부조리한 문제가 확대 반영되는 결과가 발생.

[무용분야]

- 2017년도 사업 계획의 충실성 여부, 단체의 활동 실적과 운영 능력 여부, 민간단체의 지원금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음.
- 서류가 미비하거나 연수단원 운영계획이 부실 혹은 차후 효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후순위로 평가
- 단체의 성격과 직무 영역이 연수단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연수단원이 그 직무를 통해 역량을 발휘하고 개발해 갈 수 있는지를 고려
- 2017년도 사업계획과 단체의 운영 능력을 고려하여 연수단원의 숫자와 직무 분야를 조정.
- 신청 단체나 연수단원의 배치 범위(실기, 기획과 제작, 홍보마케팅)가 무용계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즉 무용단체의 경우는 거의 모든 단체가 실기 분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수단원의 배치 또한 실기(공연)과 관련된 기획과 제작, 실연, 홍보와 마케팅으로 한정된다. 앞으로 이론, 비평, 아카이브, 프로듀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무용단체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고려해주시고 이론과 기획을 전공으로 졸업하는 무용 전공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 필요.

[음악분야]

- 문화예술기관(단체)에서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연수단원이 해당 단체에서 현장 실무 능력 배양이 가능한 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문화예술기관(단체)의 최근 2년간 활동실적, 2017년 사업계획, 연수단원 지원계획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부정수급단체나 활동실적, 계획 등이 미흡한 단체는 후순위로 평가.
- 단체의 역량과 실적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중점 평가하였다. 첫째, 최근 2년간의 적극적인 연주활동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2017년도의 연주 계획이며, 세 번째는 연주 프로그램을 통한 질적인 측면이었다. 그러나 첫 번째 측면에서 볼 때 서류만을 통한 점검은 동일한 잣대위의 평가의 적절성 면에서의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힘든 측면들이 있었다.
- 비계량 평가에 있어, 동일한 잣대를 댈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단체의 크고 작음을 떠나 힐 예로, 나열식으로 되어있는 연주 횟수나 관객의 수를 어느 정도 까지 인정할 수 있을지, 혹은 절대적으로 그 음악회가 열렸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사업공모에 앞서, 지원하는 단체들이 동일한 평가도구에 맞춰 자체평가를 포함한, 객관화된 지표의 서식을 갖춘 공모 신청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좀더 객관화된 정보를 구축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단체들에 대한 지원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또한 신청한 단체들의 수준을 우리나라의 연주 단체를 대표하기에는 미흡하다. 다시 말 해 국가적 지원을 해줄 만큼 그 수준에 미달한 단체들도 많다는 것이다. 경쟁 구도라 하기에는 다소 미약한 부분들이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위원회의 적극적 홍보도 요구된다. 분명히 “음악” 분야에도 인턴십 제도가 필요하다. 첫 째는 그 여실히 연주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고, 그 다음 경영, 기획 등의 분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원 분야의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인턴십이라는 제도에 발맞춰 음악에서도 실제 “연주인들”에게 국가적 예산이 지원되길 바라며, 이 제도가 음악인들의 미래와 우리사회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되는 방향이길 바란다.

[전통예술분야]

- 신청 단체의 활동실적과 운영계획을 중점적으로 심의했음.
- 신청 단체의 주요활동을 중심으로 심의 평가 하였으며, 2017년도 운영 계획을 중점적으로 살펴 평가에 크게 반영하였음. 나아가 단체운영의 규모와 기획의도를 참고 하였음.

- 연수단원 심의인 만큼 단체의 활동실적과 작품력, 활동력을 고려하고 구체적 계획과 연수단원 인력배치 계획을 중요하게 참조함. 아울러 전통분야 지원의 적합성 여부(전통예술 단체로서의 정체성)도 함께 고려함. 연수단원의 열정페이를 강요하지 않는 단체를 선별하기 위해 노력함.
- 최근 활동실적이 부실하거나 연수단원을 단순 업무 보조요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으며, 전통예술과 거리가 먼 활동계획을 기술한 경우가 있음.
- 가능하면 많은 단체가 연수단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함.
- 공적기관(단체)의 경우 많은 연수단원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많은 경우 단체의 작품력, 연주력, 활동력의 연속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함.
- 실연자 지원과 기획, 행정, 홍보 인력 지원을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고려 요망.

[예술일반 분야]

- 민간단체를 우선으로 하고 신규단체 배정에 중점을 둬. 공공단체의 경우 평가기준이 모호하여 오랜 토론을 거침. (공공단체의 경우 성격이 다양하여) 공공단체의 평가기준이 모호함. 추후 지원서 제출 시 신청단체가 지원하는 부분의 신청단체 실제 근무 인력자료를 첨가하기를 희망함. 경영, 기획, 홍보, 무대기술 등 신청한 파트의 근무 인원을 기재하여 연수단원의 활용도와 필요도를 평가하고 장래성도 가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
- 연수 지원자들이 다양한 지역과 직군에서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안배하였음. 단체의 프로그램과 경험을 고려하여 연수 지원자들이 안정적이고 도움이 되는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단체를 심의함.
- 재정 여건을 위협받는 민간단체의 연수단원 지원 기회를 늘리고자 애썼고, 공공기관, 민간단체의 인력 충원보다 상대적으로 청년인턴이 효과적으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여건을 선택하고자 노력했음.
- 신규기관, 단체의 지원을 늘리는 방향보다 기존의 청년인턴 지원을 받은 곳이 지속적으로 ㅂ인력 배치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단, 공공기관, 민간단체가 청년인력을 성장시키고 사회경험을 잘 쌓을 수 있으며, 고용기회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교육, 모니터링, 업무개선 토의 등을 예술위에서 도모해야만 사업성과 기대